언어 영역

1. ①	2. ③	3. ③	4. ④	5. ④
6. ②	7. ①	8. ⑤	9. ⑤	10. ③
11. ⑤	12. ①	13. ③	14. ②	15. ①
16. ④	17. ①	18. ④	19. ③	20. ③
21. ⑤	22. ④	23. ③	24. ①	25. ④
26. ①	27. ③	28. ③	29. ②	30. ②
31. ③	32. ①	33. ④	34. ③	35. ①
36. ③	37. ③	38. ①	39. ④	40. ①
41. ④	42. ②	43. ⑤	44. ③	45. ③
46. ②	47. ①	48. ①	49. ⑤	50. ④

1. 맞고 자연스러운 표현 이해 정답 ①

다섯 개의 선택지 중에서, 어법상으로 틀린 부분이 없고 자연스러운 문장은 ①이다. 문장 속에 등장하는 '결코'라는 부사어는 부정어('아니었지만')와 호응하는 말임을 알아 두자.

② 뒤의 서술어 부분에서 '협동'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앞의 주어 부분에서는 '협동'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다. → '한국인은 언제나 집단보다는 개개인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협동한다.'

③ 서술어에 해당하는 내용이 '다루고 있으며'와 '엿볼 수 있다'이므로, 이와 호응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어를 '이 작품에서는'으로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 '이 작품에서는 세대 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으며 힘의 변화에 대한 통찰을 엿볼 수 있다.'

④ '따지다'는 타동사이므로 목적어가 필요한데, 목적어에 해당하는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그리고 문맥상으로 볼 때 어순이 어색하며, 주어 '그는'과 서술어 부분 '당연한 일이었다'의 호응 관계도 적절하지 않다. → '그는 초대를 받으면 시간을 아끼기 위해 교통편을 신중하게 따져 보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었다.'

⑤ 문장 안에 들어 있는 '때문에' 앞뒤의 내용이 인과 관계가 아니어서 문맥상으로 어색한 문장이다. 그리고 두 내용이 인과 관계로 연결되려면 앞뒤의 내용 순서를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 '말과 자동차는 둘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달리는 지면의 성질도 다르다.' 혹은 '말과 자동차가 달리는 지면의 성질이 다르다는 것은 둘의 구조가 다름을 보여 준다(주는 것이다).'

2. 어문 규범의 이해와 사용 정답 ③

③의 '셋방'과 '남부럽지'는 모두 어문 규범에 맞는 말이다.

① '겉잡다(겉잡을)'는 '겉가량으로 대강 어림잡다'라는 뜻을 지닌 말이다. 문맥상으로 볼 때, '(잘못 치닫거나 기우는 형세 따위를) 붙들어 바로잡다', '진정하거나 억제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걷잡다(걷잡을)'라는 말을 사용해야 한다.

② 접미사 '-장이'는 수공업적인 기술로 물건을 만들거나 수리하거나 하는 사람을 홀하게 이르는 말(예 대장장이, 미장이)이다. 사람의 성질, 독특한 습관·행동·모양 등을 나타내는 말에 붙어, 그 사람을 홀하게 이르는 말은 '-쟁이'이다. 따라서 '빚장이'는 틀리고 '빚쟁이'가 어문 규범에 맞다.

④ '-(으)르게' 같은 어미는 뒤의 음절이 된소리로 발음되더라도 예사소리로 적는다. 따라서 '갈께요'는 틀린 말이고 '갈게요'가 어법에 맞는 말이다.

⑤ 톱질이나 줄질을 할 때 쓸리어 나는 소리는 '쓱싹쓱싹'이라고 적어야 한다.

3. 한글 맞춤법의 이해와 적용 정답 ③

한자어에서 본음으로도 나고 속음으로도 나는 곳은 각각 그 소리에 따라 적는다는 원칙에 따를 때, ③의 '희노애락(喜怒哀樂)'은 '희로애락(喜怒哀樂)'으로 적어야 한다.

4. 한글 창제 원리의 이해 정답 ④

한글의 초성, 즉 자음은 발음하는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ㄱ, ㄴ, ㅁ, ㅅ, ㅇ'의 다섯 글자를 기본으로 만든 다음, 가획(加劃)과 병서(竝書)의 원리를 적용하여 나머지 글자를 만들었다.

- ㄱ :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 ㄴ : 혀끝이 윗잇몸에 닿은 모양
- ㅁ : 입술의 모양
- ㅅ : 이의 모양
- ㅇ : 목구멍의 모양

5. 글다듬기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④

'도탄(塗炭)'은 생활이 몹시 곤궁하거나 비참한 경지를 이를 때 쓰는 말이다. ㉣의 앞뒤 문맥으로 볼 때 생활 형편상의 곤궁함이나 비참함을 말하는 상황이 아니므로, 헤어나기 힘든 처지를 비유하여 이르는 말인 '수렁'을 그대로 두는 것이 낫다.

③ ㉢의 앞뒤에서는 종교와 문학이 각기 독자적인 길로 나아감으로써 발생하게 된 폐단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은 종교 본래의 기능 상실에 대해 언급한 문장이므로 삭제하고, 논지에 어울리는 내용의 문장을 넣어야 한다.

⑤ 앞의 서술어 부분인 '잃지 말아야 하고'와 일치하는 형태가 되어야 하므로 '유지해야 한다'로 고쳐야 한다.

6. 주제(중심 내용)에 적절한 글감 선택 정답 ②

쓰고자 하는 글이 <동양 연극과 서양 연극의 차이점>이고, 이 글의 하위 항목인 '관객과 무대와의 관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세부 내용(글감)을 선택하는 유형이다. 결국 이 문제는 동양 연극과 서양 연극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관객과 무대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을 찾는 유형이다.

<보기>의 ㉠, ㉢, ㉤이 관객과 무대와의 관계 측면에서 엿볼 수 있는 동양 연극과 서양 연극의 차이점에 해당하는 내용들이다. ㉡과 ㉣은 '관객과 무대와의 관계'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아니라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은 동양 연극의 재창조성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고, ㉣은 형식적 측면에서 엿볼 수 있는 서양 연극과 동양 연극의 차이점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7. 명사에 대한 이해와 적용 정답 ①

의존 명사는 자립성이 없기 때문에 문장 안에서 홀로 쓰이지는 못하고 다른 말 아래에 기대어 쓰이는 명사를 말한다. 문제에 제시된 설명에서, 의존 명사는 그 말 앞에 반드시 관형어가 와야만 문장에 쓰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①의 '앞'은 앞에 관형어가 오지 않더라도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있는 자립 명사이다. 즉, '앞에는 어머니께서 앉아 계셨다.'라는 문장도 성립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8~11] 지문 해제

예술과 민중의 관계

현대에 접어들어 분석적인 방법으로 사물을 표현하는 미술의 경향을 언급한 다음, 예술과 민중의 관계에 대하여 밝힌 글이다. 예술과 민중이 서로에게 다가가려고 할 때 건강한 관계가 유지된다고 지적하면서, 예술은 비인간화에서 탈피하여 인간화로 나아가야 하고, 민중도 예술에 대한 안이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술이 도덕이나 사회·국가적 이념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생각은 예술의 발전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예술을 사랑하는 대중을 불행하게 한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예술의 보편적 특질은 미(美)이며, 이는 순수히 형식적인 특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8. 세부 내용의 이해 및 확인 정답 ⑤

둘째와 셋째 문단의 내용을 감안할 때,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진술은 ⑤이다. 20세기 초에 이르러 극도의 분석적인 방법으로 사물을 표현(새로운 표현 기법)하는 경향이 등장하였는데, 그 결과는 실제의 사물과 동떨어진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한 경향은 많은 선과 면을 집적하여 화면을 자의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새로움이라는 미학상의 만족을 얻었지만, 사물의 모습을 매우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버렸다고 지적하고 있다.

① 현대 예술의 성격이 독선적이라는 것과, 현대 예술가들의 성격이 독선적·개인주의적이라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② 마지막 문단에서 부르크할트의 말을 인용하여 언급한 '사실에 얽매인 예술, ~ 소멸할 것'이라는 내용을 통해 접근할 때 일치하지 않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③ 나치 치하에서는 예술을 사회 계도나 사회 변혁의 수단 정도로 생각했다는 점에서, 예술이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나치 치하에서 예술가들이 민중으로부터 크게 외면당했다는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

④ 나치 치하의 예술에 대해 언급하면서, 예술이 도덕이나 사회·국가적 이념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생각은 예술의 발전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예술을 사랑하는 대중을 불행하게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9. 정보 및 관점의 분석적 이해 정답 ⑤

㉠은 20세기 초에 접어들어 극도의 분석적인 방법으로 사물을 정확히 표현하려고 한 입체파 화가들의 경향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둘째 문단의 '피카소나 브라크는 보이는 한 면으로는 사물의 참모습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대상을 여러 각도에서 동시에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라는 내용으로 볼 때, ㉠이 궁극적으로 목적한 것은 ⑤의 '진실함'이라 할 수 있다.

10. 문맥 및 정보의 이해 정답 ③

'예술이 지나치게 독선적인 자기 칩거에 빠져 ㉡민중과의 대화를 스스로 포기하였다'는 문맥적 상황에 주목할 때, ㉡의 수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의 '작품'이다. 제시된 글 자체가 예술과 민중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내용인데, 예술과 민중은 구체적 작품을 통해 서로 교류를 하게 되는 것이다.

11. 함축적 의미의 차이 변별 정답 ⑤

㉢은 나치에 의한 모더니즘 탄압의 사례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언급한 말이다. 즉, 국가주의 리얼리즘에 위배되는 작품,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예술에 위배되는 작품을 두고 한 말이다.

ⓐ~ⓓ는 민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예술적 경향이 아니라는 점에서, 히틀러의 입장에서 보면 '타락한' 예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 '민중적인'은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예술과 관련하여 언급한 말이므로, 히틀러의 입장에서 보면 '타락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12~16] 지문 해제

우주론의 변천 및 발전 과정

처음 부분에서 중세의 우주론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언급한 다음, (가)~(마)에서 중세 이후 우주론의 변천 및 발전 과정을 시기별(대표 학자들의 주요 업적)로 설명한 글이다. 중세의 우주론에서는 우주를 지구의 공간과 천체의 공간으로 나누어 생각했는데, 그 이후 근대적 우주론으로 변화·발전해 가면서 두 공간을 구분하여 접근하는 방식이 사라지고, 마침내 지구 공간과 천체 공간은 동일한 물질 세계라는 인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12. 정보의 확인과 이해 정답 ①

제시된 지문에서 우주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단은 (가)이다. (가)는 중세의 우주론에 최초로 반기를 든 니콜라스 쿠사의 입장을 소개한 내용인데, 여기서 '우주는 바깥 경계선이나 중심 같은 것을 갖고 있지 않다'는 언급이 우주의 크기를 짐작할 만한 내용에 해당한다.

13. 글의 설명 방식 파악 정답 ③

앞의 '지문 해제'에서도 밝혔듯이, 처음 부분에서 중세의 우주론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언급하고, (가)~(마)에서 중세 이후 우주론의 변천 및 발전 과정을 시기별로 나열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해당 시기를 대표하는 학자의 주요 업적들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우주론의 변천 과정에 대한 지문의 설명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이다.

① 학자의 삶을 연계하여 설명하지는 않았다.
② 학자들의 학설을 시기별로 설명하기는 했지만, 그 학설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설명하지는 않았다.

14. 관점을 부정하는 근거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②

㉠의 '중세의 우주론'에서는 우주를 지구의 공간과 천체의 공간으로 나누어, 두 공간 개념을 다른 차원으로 생각했다. ②의 '천체가 톱니바퀴처럼 움직임'이라는 내용은, (나)에 드러나 있듯이,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하여 움직인다는 고대의 과학자 프톨레마이오스의 입장과 관련하여 언급한 것이다. 따라서 '천체가 톱니바퀴처럼 움직임'이라는 내용은 ㉠을 부정하는 근거로 볼 수 없다.

① 지구 공간과 천체 공간을 중세적으로 구분하는 것에 학문적 반기를 들고, 우주는 바깥 경계선이나 중심 같은 것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③ 천체의 세계를 지구와 같이 자연 법칙에 따라 작동하는 구체적인 물체로써 취급한 것이다.
④ 중세의 우주론과 달리, 천체에서도 지구와 같은 변화가 일어난다고 본 것이다.
⑤ 태양과 행성 사이에 중력이 작용하므로 천체는 지구처럼 구체적인 물리적 물체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천체 공간과 지구 공간은 동일한 물질 세계라는 인식이다.

15. 세부 정보의 이해 및 관련성 파악 정답 ①

㉡은 중세의 우주론에 대하여 언급한 내용이다. ㉡의 바로 앞에서, 중세에는 이 지구를 죽음과 변화의 세계, 천체를 영원과 불변의 세계라고 믿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에서, 중세에는 육체와 영혼으로 대비되는 형이상학적 이원론과 지구 공간과 우주 공간으로 대비되는 우주론적 이원론 체계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육체는 지구 공간에 대응하고, 영혼은 천체 공간에 대응하는 내용이므로, ㉡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①이다.

16. 내용 및 관점의 이해와 적용 정답 ④

(나)에 드러나듯이, 코페르니쿠스는 태양 중심의 우주를 생각해 낸 사람이다. 즉, 지구는 태양 중심의 우주 가운데 하나의 행성이며, 지구가 태양 주위를 움직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런데 문제에 제시된 자료에서, 코페르니쿠스는 신이 여전히 천체를 움직이는 근원이라고 보았고, 코페르니쿠스의 우주관에서는 천체의 세계가 성스러운 천상의 '다른' 세계로 계속 남아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코페르니쿠스는 태양 중심의 우주를 생각하여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이지만, 여전히 중세의 신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④)고 할 수 있다.

① 신이 여전히 천체를 움직이는 근원이라고 본 코페르니쿠스의 우주관을 언급한 것은, 학문보다 신앙을 더 중시했음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아니라 신 중심의 중세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드러내려는 차원으로 이해해야 한다.
⑤ 코페르니쿠스가 자신의 지식에 대해 지닌 신념의 정도에 대하여 판단할 만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7~22] 지문 해제

(가) 김수영, 『폭포(瀑布)』

사물에 대한 지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주지시로, '폭포'를 제재로 하여 부정적 현실에 타협하지 않는 의지적인 삶의 자세를 노래한 작품이다. '폭포', 즉 물줄기의 낙하라는 자연 현상에서 정신적 의미를 발견해 내어 형상화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회 현실에 대한 자각, 그런 현실에 대응하여 취해야 할 곧은 자세 같은 것들이다.

(나) 이육사, 『교목(喬木)』

줄기가 굳고 굵으며 높이 자라는 나무인 '교목'을 제재로 하여 굳은 결의를 간결하고도 강인한 어조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우뚝 남아 서서', '휘두르고', '깊이 거꾸러져' 등 남성적 강인함을 느끼게 하는 시어는, '차라리', '아예', '마침내', '차마' 등의 부사와 어울려 화자의 단호함을 드러내고, '말아라', '아니라', '못해라' 등 단호한 어조의 부정어를 통해 그 강인한 의지를 배가시키고 있다.

(다) 정몽주, '이 몸이 죽고 주거 ~'

고려 왕조에 대한 강렬한 충성심을 토로한 작품이다. 초장에서 죽음이라는 극단적 시어와 반복법 및 점층법을 사용했고, 중장에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강렬한 자신의 의지를 밝혔으며, 종장에서는 주제인 임 향한 일편단심을 영탄법과 설의법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라) 원천석, '눈 마자 휘어진 대를 ~'

언제나 곧고 눈 속에서도 푸른 대나무를 제재로 하여 어떠한 억압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화자의 굳은 의지를 형상화한 작품이다. 은둔 생활을 하면서 절개를 지키려는 고려 유신의 높은 우국충정이 잘 드러나 있다.

17. 개괄적 특징 이해 정답 ①

(가)는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지는 '폭포'를 제재로 하여 부정적 현실에 타협하지 않는 의지적인 자세를 형상화한 작품이고, (나)는 시련의 상황에서도 굽히지 않는 저항 의지를 노래한 작품이다. 그리고 (다)는 고려 왕조에 대한 일편단심의 충성심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의지적인 자세를 드러낸 작품이며, (라)는 어떠한 시련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형상화한 작품이다. 이렇게 볼 때, (가)~(라)에서는 화자의 불굴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①이 가장 적절한 설명이다.

② 선경후정(先景後情)은 앞부분에 경치를 제시하고 뒷부분에 정서를 제시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인데, 제시된 작품들이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다)에는 해당하지 않는 설명이다.

④ (가)와 (나)를 관조적 성격의 작품으로 보기 어렵고, (라)는 대나무의 속성에 빗대어 절개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비판적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가)와 (나)를 희망적 정서, (다)와 (라)를 비관적 정서로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8. 표현 기법의 유사성 파악 정답 ④

㉠에서,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는 시구는 무서운 기색도 없이 쉴 사이 없이 떨어지는 '폭포'의 속성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실제로 높이나 폭이 없는 '폭포'는 없는 법인데, 타협할 기미조차 없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폭포'의 속성을 부각하기 위해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역설의 표현 기법이 드러나 있는 것은 ④이다.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시구는 대표적인 역설법에 해당한다.

① 도치법 ② 반복법
③ 반복법, 설의법 ⑤ 반복법, 열거법

19. 작품 감상의 관점 이해와 적용 정답 ③

문제에 제시된 '지훈'의 감상 방법은 작품의 어조와 사용된 시어를 통해 접근하고 있으므로 내재적(절대론적) 관점의 감상 방법에 해당한다. 작품 감상 방법에서 내재적 관점은 작품 외적인 요소(시대나 사회, 작가, 독자 등)를 개입시키지 않고 언어, 운율, 문체, 표현, 구성, 이미지 등 작품 자체의 요소에만 주목하여 이해·감상하는 방법이다. ③의 '진구'가 (가)의 표현이나 운율에 주목하여 접근하고 있으므로, '지훈'의 감상 방법과 동일하다.

①, ② 작가의 요소에 주목하여 접근한 표현론적 관점
④ 시대 상황에 주목하여 접근한 반영론적 관점
⑤ 독자에게 주는 효용 측면에 주목한 효용론적 관점

20. 작품 주제의 유사성 파악 정답 ③

(다)는 임을 향한 일편단심(一片丹心)의 절개, 즉 고려 왕조에 대한 변함이 없는 충성심을 노래한 작품이다.

선택지의 시조 중에서 (다)와 주제 측면에서 가장 유사한 작품은 ③이다. ③은 박팽년의 시조로서 오직 한 임금(단종)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고 있는 작품이다.

<③의 시조 전문 풀이>

좋은 물에서 금이 나온다 한들 물줄기마다 금이 나오며
곤강에서 옥이 나온다 한들 그곳의 산마다 옥이 나오겠느냐
아무리 여필종부(女必從夫)라 한들 임마다 따를 수 있으랴

① '황국화(黃菊花)'를 보낸 임(금)의 뜻을 앎.
② 자연을 벗 삼아 생활하는 즐거움
④ 신하를 떠나보내는 임금의 애달픈 마음
⑤ 임과의 이별에 대한 슬픔

21. 시어가 함축하는 의미의 유사성 파악 정답 ⑤

㉡의 '눈'은 새 왕조인 조선에 협력하기를 강요하는 세력 혹은 그 압력을 상징하는 시어이다. 이와 유사한 의미 기능을 하는 것은 ⓔ의 '바람'이다. (나)에서 '바람'은 외부의 시련 혹은 유혹을 상징한다.

22. 시상 전개에 맞는 시어의 적용 정답 ④

(라)는 고려 말의 신하인 화자가 새 왕조인 조선에 결코 굽히지 않겠다는 굳은 절개를, 눈 속에서도 푸른 대나무에 비유하여 노래한 시조이다. 따라서 Ⓐ에는 이러한 대나무의 속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시어가 들어가야 한다. ④의 '세한고절(歲寒孤節)'이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푸른빛을 잃지 않는 '대나무'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② 가지가 길게 축축 늘어진 큰 소나무
③ 서릿발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외로이 지키는 절개라는 뜻으로, '국화'를 비유하여 이르는 말

[23~27] 지문 해제

> **인간의 언어 능력**
> 언어는 인간 본능의 산물이라는 점을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며 자세하게 언급한 글이다. 글쓴이는 인간의 언어 능력이 본능적이라는 점은 아이들의 언어 습득 과정, 두뇌에 관한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23. 세부 정보의 이해 정답 ③

둘째 문단에서, 어떤 아이든지 모국어를 배울 때에는 언어적 천재성을 발휘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언어 능력이 본능적이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언급한 내용이다. 따라서 언어 구사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은 천재일 가능성이 높다는 ③은 본문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

① 첫째 문단의 "언어의 형식에 관해서라면 ~ 공자가 사람을 사냥하는 아삼 주의 야만인들과 나란히 걷는다."라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원시 사회에서는 뼈에 금을 그어서 계산을 한 반면 문명 사회에서는 컴퓨터로 계산을 한다는 첫째 문단의 내용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④ 체로키 어와 영어의 예를 언급하면서 설명한 내용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⑤ 둘째 문단의 '육아에 대한 민간 이론이 다른 문화권에서는 어떠한지를 조사해 보면 우리는 어느 정도 균형 잡힌 시각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24. 현상의 유사성 파악 정답 ①

체로키 어의 대명사 체계와 영어의 그것을 예로 들어 설명한 ㉠을 통해, 비슷한 개념을 나타내는 어휘 체계가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같은 개념을 나타내는 말이라 하더라도 어떤 언어는 그 체계가 세분화되어 있고, 어떤 언어는 통합화·단순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언어적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은 ①이다. 한국어로 쓴 현대시를 영어로 번역할 때 한국어에 대응되는 영어 단어를 선택하기 어렵다는 것은, 두 언어의 체계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25. 어휘의 사전적 의미 이해 정답 ④

㉡의 '암묵적(暗默的)'은 자기 생각을 겉으로 드러내거나 표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는 말이므로, 사전적 의미를 바르게 지적한 것은 ④이다.

26. 정보의 분석적 이해 정답 ①

㉢은 특별히 가르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시기가 되면 아이 스스로 어떤 능력을 획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어떤 능력의 경우에는 특별한 가르침이 없더라도 본능적·선천적으로 획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걷는 방법의 경우를 통해 언급한 내용이지만, 이는 인간의 언어 능력이 본능적·선천적이라는 점을 밝히는 과정에서 알기 쉬운 예를 통해 설명한 내용이므로 ①이 가장 적절하다.

27. 구체적 사례의 이해를 통한 판단 정답 ③

㉣ 바로 뒤의 내용 '문법적 능력(언어적 능력)이 손상되었지만 좌우에 관한 지식이나 ~ 시계 맞추기 등과 같이 비언어적 능력과 관련된 지능들은 모두 보존되어 있었다.'는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인간에게는 언어적 능력과 비언어적 능력을 담당하는 뇌 조직이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의 사례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이다.
② 훈련이 되지 않은 왼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능력 등과 같은 인지력이 보존되어 있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지, 그러한 능력이 발달한다는 점을 언급한 것은 아니다.

[28~32] 지문 해제

> **『기미 독립 선언서』**
> 이 글은 일제 강점기에 민족 대표 33인의 이름으로 조선의 자주 독립을 선언한 내용이다. 제시된 부분의 주요 내용은 독립의 필요성과 독립의 결의, 독립을 선언하는 우리의 자세와 입장, 일제 강점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임무, 양국 병합의 문제점과 해결책(일본의 각성 촉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28. 세부 내용의 이해 및 확인 정답 ③

마지막 문단의 '眞情(진정)한 理解(이해)와 同情(동정)에 基本(기본)한 友好的(우호적) ~ 捷徑(첩경)임을 明知(명지)할 것 안인가. → 참된 이해와 동정에 그 기초를 둔 우호적인 새로운 판국을 타개하는 것이 피차간에 화를 쫓고 복을 불러들이는 빠를 길인 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내용으로 볼 때, ③은 본문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
① 我(아) 文化民族(문화 민족)을 土昧人遇(토매인우)하야 : 우리 문화 민족을 야만족같이 대우하여
② 子子孫孫(자자손손)의 永久完全(영구 완전)한 慶福(경복)을 導迎(도영)하려 하면 : 자자손손에게 영구하고 완전한 경사와 행복을 끌어 대어 주려면
④ 當初(당초)에 民族的(민족적) 要求(요구)로서 出(출)치 안이한 兩國併合(양국 병합) : 당초에 민족적 요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던 두 나라의 합방
⑤ 舊思想(구사상), 舊勢力(구세력)에 羈縻(기미)된 日本(일본) 爲政家(위정가)의 功名的(공명적) 犧牲(희생)이 된 : 낡은 사상과 묵은 세력에 얽매여 있는 일본 정치가들의 공명에 희생이 된

29. 의미가 유사한 한자 성어 이해 정답 ②

㉠의 '芟除(삼제)'는 '풀을 베어 없앤다'는 뜻으로, '악인(惡人)·악폐(惡弊) 따위를 아주 없애 버림'을 이르는 말이다. 이러한 의미를 지닌 말은 ②의 발본색원(拔本塞源)이다. 이는 '폐단의 근본 원인을 아주 없앰'이라는 뜻이다.
① 책을 묶은 가죽 끈이 세 번이나 끊어졌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말로, 독서에 힘씀.
③ '머리와 꼬리는 잘라 버린다는 뜻'으로, 요점만을 남기고 앞뒤의 사설을 빼어 버림.
④ '한 번 그물을 쳐서 모조리 잡는다'는 뜻으로, 어떤 무리를 한꺼번에 죄다 잡음.
⑤ '제 논에 물 대기'라는 뜻으로, 자기에게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함.

30. 어구의 세부 요소에 대한 개괄적 이해 정답 ②

㉡이 포함된 '人道(인도)의 干戈(간과)로써 護援(호원)하는 今日(금일)'은 '인도(人道)라는 무기로써 도와주고 있는 오늘

날'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他(타)의 怨尤(원우)'는 '남을 책망하다'라는 뜻이다. 따라서 ㉡에 들어 있는 '의'와 '他(타)의 怨尤(원우)'에 들어 있는 '의'는 의미 기능이 다르므로 ②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31. 통하는 다른 표현으로의 대체 정답 ③

㉢의 '綢繆(주무)하기에'는 '미리미리 꼼꼼하게 챙겨 갖추기에', '수습하기에'라는 뜻이다.

32. 유의어 관계에 해당하는 단어의 이해 정답 ①

ⓐ 一時的(일시적) : 한때만의 (것). 오래가지 않는 (것)
ⓑ 功名的(공명적) : 공을 세워 이름을 세상에 떨치려는 (것)
ⓒ 姑息的(고식적) : 일시적이며 임시변통인 (것)
ⓓ 差別的(차별적) : 차이가 있게 구별하는 (것)
ⓔ 友好的(우호적) : 관계나 사이가 좋은 (것)

이렇게 볼 때, ⓐ와 ⓒ가 의미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으므로 유의어 관계에 해당한다.

[33~37] 지문 해제

위계화(불평등)의 개념 및 구조

위계화의 의미에 대해 설명한 후, 그러한 불평등이 어떠한 방식으로 경험되고 조직화되는지에 대해 언급한 글이다. 산업 사회에서의 불평등은 계층과 계급의 차이를 통해서 정당화되는데, 이는 재산,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 학력, 집안 배경 등등의 요소들의 결합에 의해 사람들 사이의 위계를 만들어 낸다. 글쓴이는 불평등이 재생산되는 다양한 사회적 기제들이 때로는 관습이나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특정 사회의 본질적인 문화적 특성으로 간주되고 당연시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33. 글의 중심 화제 파악 정답 ④

(가)에서 위계화의 의미(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나서, (나) 이하에서 그러한 불평등이 어떠한 방식으로 경험되고 조직화되는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글의 내용을 포괄하는 제목으로는 ④의 '위계화의 개념과 구조'가 가장 적절하다.

34. 정보들 간의 관련성 이해 정답 ③

㉠은 위계화에 따른 불평등이 정당화되고 조직화되는 사회적·문화적 이데올로기를 말하는 것이다. 생물학적인 차이를 지칭하는 개념이라는 내용의 ③은 ㉠과 관련이 없다.

① (가)에서, 한 개인이 특정 집단에 속한다는 것은 그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는 지위가 높거나 우월하다는 믿음을 갖게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② (가)의 '우리는 둘 사이의 지위 차이를 인식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그들을 대하게 된다.'라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나)에서, 산업 사회에서의 불평등은 계층과 계급의 차이를 통해서 정당화된다고 밝히고 있다.
⑤ (다)의 '권력 차이와 그에 따른 폭력이나 비인간적인 행위들이 자연스럽게 수용될 때가 많다.'라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35. 어휘에 내재된 개념 이해와 적용 정답 ①

'지표(地表)'는 방향을 가리켜 보이는 표지, 혹은 사물의 가늠이 되는 표지를 뜻하는 말이다. 본문의 문맥적 상황을 감안할 때, ㉡은 우등성과 열등성을 구분하거나 결정하는 기준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방식으로 대우해야 하는지의 기준 측면으로 언급한 ⓐ의 '외모'가 ㉡과 관련성이 있다.

36. 논지 전개 양상의 이해와 적용 정답 ③

문제에 제시된 내용은 나치 치하의 유태인 대학살과 라틴 아메리카의 다인종 사회의 예이다. 이는 민족이나 인종의 차이가 단순한 차이가 아닌 차별과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이용되고 있다는 내용이므로, 생득적 특성이 개인의 열등성과 우등성을 가늠하게 만드는 사회적 개념이 되곤 한다는 (나)의 뒤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37. 세부 정보의 분석적 이해 정답 ③

(다)에서, 불평등이 재생산되는 다양한 사회적 기제들이 때로는 관습이나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특정 사회의 본질적인 문화적 특성으로 간주되고 당연시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관습이나 전통은 때로 구성원끼리의 권력 차이나 폭력을 수용하는 사회적 기제로 이용되기도 한다는 ③이 본문의 내용을 바르게 해석한 것이다.

[38~41] 지문 해제

우리의 문화적 자긍심과 정체성

독일 유학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의 문화적 자긍심과 정체성 문제에 대해 언급한 글이다. 글쓴이는 스스로를 높이는 자기 보호의 태도가 자존심이고, 자신에 대해 스스로 가지는 긍지가 자긍심이라고 언급하면서 두 개념을 구별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경우 자긍심은 없으면서 자존심은 대단한 민족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문화적 자긍심이 결여되어 있는 우리의 현실을 문제 삼으면서, 문화적 정체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낸 글이다.

38. 및 논지 전개 방식의 이해 정답 ①

(가)는 글쓴이가 독일 유학 당시에 느꼈던 점, 즉 무의식에 있을지도 모르는 한국 문학에 대한 경시와 외국 문학에 대한 추수(追隨)가 상대방에게 들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의 측면 대하여 언급한 내용이다. 따라서 일반인의 통념을 비판하고 있다고 설명한 ①은 적절하지 않다.

② 글쓴이는 자존심과 자긍심을 구별하면서, 자존심을 부정적인 측면으로, 자긍심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고 있다.

③ 중국 유학생과 일본 유학생, 그리고 그 중간적 위치에 있었던 글쓴이 자신의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있다.

④ 유학 당시 글쓴이가 '만약 우리 문학과 철학에 대한 확고한 문화적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하는 가정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⑤ 본문은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적 자긍심과 정체성의 문제에 대해 다룬 글이라는 점에서, 진리나 법칙보다는 가치나 태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9. 구체적 사례의 적용 정답 ④

글쓴이는 (나)에서,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자신에 대해 스스로 가지는 긍지가 자긍심(自矜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문화적 자긍심의 결여에 해당하는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이다. 외국 사람들을 위해 모음조화나 주어의 생략과 같은 한국어의 특징을 고친다는 것은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결여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40. 한자 성어의 적용 정답 ①

㉡의 의미에 해당하는 한자 성어는 ①의 '묵묵부답(默默不答)'이다. '묵묵부답(默默不答)'은 '입을 다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음'이라는 뜻이다.

② 무슨 일의 시비를 따지느라고 옥신각신함.

③ (말 속에 뼈가 있다는 뜻으로) 예사로운 말 같으나 그 속에 또 다른 뜻이 들어 있음.

④ (말의 귀에 동풍이 불어도 말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남의 의견이나 충고의 말을 귀담아듣지 아니하고 흘려 버림.

⑤ (동쪽을 묻는데 서쪽을 대답한다는 뜻으로) 묻는 말에 대하여 아주 딴판인 엉뚱한 대답

41. 내용 및 관점에 대한 비판 정답 ④

글쓴이는 독일 유학 시절에 개인적으로 느꼈던 점을 바탕으로 우리는 자긍심은 없고 자존심만 대단한 민족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이는 객관적인 근거나 충분한 자료를 통해 추론한 판단이라기보다는 자신과 주변의 특수한 사례를 가지고 우리 민족 전체의 성향으로 단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지나친 일반화(④)라고 비판할 수 있다.

[42~46] 지문 해제

박완서, 『엄마의 말뚝 Ⅰ』

이 작품은 시골 고향에서 남편을 잃은 후,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등지고 어린 오누이만 데리고 서울로 상경한 어머니가 마침내 집 한 채를 마련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소설이다. 어머니는 억척스러움과 의지로 곤궁한 생활을 극복하며 서울에 터를 잡는데, 이러한 어머니의 모습이 작가의 유년기와 함께 담겨 있다. 즉, 근대화의 흐름 속에서 억척스러움과 의지로 자식들을 교육시키고 자신의 자리를 찾는 어머니로서의 모습이 작품 전체에 드러난다. 이러한 엄마의 존재가 주인공 자신(서술자)의 정신적 성장에 미친 영향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근원적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 작품 전체의 줄거리

엄마는 아버지가 원인 모를 병으로 죽게 되자 오빠를 서울로 데려간 데 이어 나를 데리러 왔다. 바느질 솜씨 하나만 믿고 아들을 출세시키겠다고 집을 떠났던 엄마는 이번엔 나에게 '신여성'이 되어야 한다고 설득한다. 하지만 막상 따라간 곳은 4대문 밖 현저동 산꼭대기의 단칸 셋방이었다. 나는 엄마가 강요하는 도시적인 삶에 길들여진다. 군것질도 하고 동네 이웃에 있는 감옥소 마당에서 놀다가 엄마에게 혼나는 등 말썽을 많이 부렸다. 엄마는 이럴 때마다 나에게 상것들하고 놀지 말라는 소리를 했다. 그러던 중 셋방살이의 수모에서 벗어나려고 절치부심하던 엄마는 집값이 싼 이 동네에서 집을 살 엄두를 내기 시작했다. 결국 금융 조합에서 융자를 받아 인왕산 마루턱에 있는 집을 샀다. 그 뒤 우리는 해방을 맞았고 문 안 평지에 집을 장만했다. 엄마는 "그때에 대면 지금 부자가 됐지." 하고 곧잘 그때와 비교하곤 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그 최초의 말뚝에 매인 셈이었다. 나는 어머니가 세운 신여성의 기준이 되었던 '너무 뒤떨어진 겉모습과 터무니없이 높은 이상과의 갈등, 영원한 문 밖 의식' 이런 것들로 해서 아직도 나의 의식은 말뚝을 가지고 있었다.

42. 소설의 서술 시점 이해 정답 ②

이 소설의 서술자는 작품 속에 등장하는 '나'이며, (가)에서 '나'는 자신에게 신여성이 될 것을 강조하는 엄마와 관련된 이야기를 직접 드러내고 있다. 즉, 이 작품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소설로서, 서술자는 작품에 등장하여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②).

① 작품에 등장하는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서술하고 있으므로, 먼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⑤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취하고 있는 소설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43. 의미의 어휘 이해 정답 ⑤

㉠의 '도시'는 '도무지, 전혀'라는 의미를 지닌 말이다.

44. 자료의 이해 및 소재의 성격 변별 정답 ③

이 작품에서 어머니는 '나'가 어릴 때부터 '신여성'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보기>에서는 그 '신여성'의 '신(新)'이라는 말에 내재된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결국 이 문제는 <보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어머니가 '나'에게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신여성'이 되라고 강조했다고 전제하고, 그 버려야 할 '낡은 것'에 해당하는 것을 찾으라는 것이다.

(가)에서 어머니는 '신여성'의 조건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 하고, 신식 모양의 머리를 해야 하며, 종아리가 나오는 까만 통치마를 입고 뾰족구두 신고 핸드백을 들고 다녀야 한다는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입장으로 생각할 때, 버려야 할 '낡은 것'에 해당하는 것은 ㉡의 '고운 물색'이다. 본문에서 '고운 물색'은 '나'가 어린 시절 당시 한창 현혹되어 있었던 것으로, 어머니가 생각하는 '신여성'의 구색('검정치마, 검정구두, 검정한도바꾸')과는 반대적 성격의 차림이다. 따라서 어머니의 입장에서 볼 때, ㉡의 '고운 물색'은 버려야 할 '낡은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5. 등장 인물의 성격 및 심리 이해 정답 ③

앞의 문제 해설에서도 언급했듯이, 어머니가 생각하는 신여성은 공부를 많이 하고, 신식 머리를 하며, 종아리가 나오는 까만 통치마를 입고 뾰족구두 신고 핸드백을 들고 다니는 모습이다.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해서 세상 이치에 대해 모르는 게 없고 마음먹은 것은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성이다. 이렇게 볼 때, 어머니가 선호하는 신여성상은 순종적이거나 연약한 여성상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어느 정도의 경제적 자립 능력을 갖추고 자신의 마음대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여성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가 선호하는 여성상을 근거로 검소함을 이끌어 내기는 어려우므로 ③의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

46. 상황에 어울리는 속담 이해 정답 ②

㉡은 '제 아무리 멀리 벗어난 것 같아도 말뚝이 풀어 준 새끼줄 길이' 이상 벗어나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즉, 아무리 벗어나 보아야 크게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를 지닌 '부처님 손바닥(②)'과 통하는 내용이다.

① 견문이 좁아서 세상 견문을 모르는 사람
③ 의지할 곳이 없어 어찌할 줄을 모름.
④ 아무 준비도 없이 큰일에 덤벼들려고 하는 잘못된 태도
⑤ 성미가 너무 급하여 참고 기다리지 못함.

[47~50] 지문 해제

> **소련 스파이가 비밀 정보를 송신한 암호의 원리**
> 소련의 스파이 클라우젠이 일본에 들키지 않고 "일본은 소련을 공격할 계획이 없음"이라는 비밀 정보를 보낼 수 있었던 원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 글이다. 즉, 'no attack'라는 내용을 암호문으로 작성하기 위해 숫자를 사용하여 표시한 원리를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47. 세부 내용의 이해를 통한 추론 정답 ①

①의 '연감에서 선택한 숫자의 위치'는 암호문에 특정 방식으로 표시되므로, 모스크바와 클라우젠 사이에 미리 약속된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연감의 해당 위치를 나타낸 수를 그대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암호문의 앞자리 5개와 더한 다음(더할 때 9를 넘는 경우 10을 윗자리로 넘기지 않음)에, 그 결과를 중간 암호문의 앞에 배열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48. 원리의 유사성 파악 정답 ①

㉠의 '이런 방식'은 'no attack(공격 없음)'라는 정보를 '729456658088'이라는 숫자로 대치하는 방식이다. 이와 유사한 암호 작성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①이다. ㉠의 경우는 알파벳을 숫자로 바꾸는 방식이고, ①의 경우에는 소문자를 다른 대문자로 바꾸는 방식이지만, 기존의 철자를 다른 철자로 바꾸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49. 구체적 정보의 이유 추론 정답 ⑤

비밀 정보를 암호화한 중간 암호문에 다시 연감의 해당 위치를 나타낸 수를 덧붙여야 하는 이유는, 암호 수신자가 사전에 약속된 책에서 암호 해독의 열쇠를 뽑아낼 수 있도록 그 위치를 알려 주기 위해서(⑤)라고 할 수 있다.

50. 정보 및 원리의 분석적 이해와 적용 정답 ④

본문의 내용으로 볼 때, ㉢에 들어갈 숫자는 중간 암호문의 앞자리 5개와, 연감의 해당 위치를 나타낸 '34236'을 더한 수(이때 더한 숫자가 9를 넘더라도 10을 윗자리로 넘기지 않음)가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간 암호문의 숫자를 구해야 한다.

본문에서, 중간 암호문은 '729456658088'과 '305166782194'라는 수를 두 줄로 배열하여 위아래로 더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두 줄의 수를 위아래로 더하되, 9를 넘더라도 10을 윗자리로 넘기지 않는 방법('7+3'은 10이 아니라 0)을 사용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방식에 따라 '729456658088'과 '305166782194'라는 수를 두 줄로 배열하여 위아래로 더하면 '024512330172'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 숫자가 중간 암호문이다. 이 중간 암호문의 앞자리 5개 '02451'과 연감의 해당 위치를 나타낸 '34236'을 더하면 '36687'이 된다. 이 숫자를 중간 암호문의 앞에 배열하여 다섯 자리씩 간격을 두어 나열하는 방식으로 최종적인 암호문을 작성했다고 설명하고 있다.